

어느날 갑자기 말이 사라져버린다면...



‘바벨’ 정용준 지음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한술 더 떠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여는 순간 파충류 표피 같은 축축한 물질이 튀어나오나면?

말이 소멸되어 버린 세상은 그 자체로 카오스다. 언어의 장애는 암흑의 세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말의 소중함을 거의 잊고 산다. 공기처럼, 물처럼 늘 곁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말이 사라져버린다면 그 후유증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벨탑’은 소통의 불가능성, 타락한 인간 존재들의 본성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광주 출신 작가 정용준이 펴낸 장편소설 ‘바벨’은 이 같은 상황을 상정한다. 작가는 2009년 현대문학에 단편 ‘굿나잇, 오블로’로 등단한 이후 줄곧 언어와 관련된 작품을 써왔다. 첫 소설집 ‘가나’에서도 작가는 언어상의 장애를 지닌 존재들을 소설 전반에 내세웠다.

그 같은 연장선에서 이번 ‘바벨’은 성서의 ‘바벨탑 신화’를 흥미롭게 변주한 일종의 패러디다. 소설적 수사를 넘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말의

문제를 매우 극단적인 시각으로 제기한다. 소설은 말이 얼음 결정으로 변한 뒤 사라지지 않고 남는다는 동화 ‘얼음의 나라 아이라’로 시작된다. 주인공은 고립과 침묵에 빠져 있던 말더듬이 소년 ‘노아’로, 그는 동화에서 새로운 언어에 대한 열망을 얻는다.

세월이 흘러 노아는 언어생물학자 ‘닥터 노아’로 성장해 말을 결정화해 기록하고 전달하는 실험을 담당한다. 그러나 그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세상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한다. 사람들이 내뿜은 말의 기운은 가스로 변하고 ‘벨리’라는 냄새나는 덩어리로 변한다.

갑작스런 혼돈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노아를 가두고 실험을 종용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또 다른 인물인 기자 출신 ‘요나’는 세상의 부조리를 직시하고 비판하지만 이를 타개하기 위한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는다.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기 위해 레인보라는 모임에 관여하고 있는 ‘마리’ 역시 이렇다 할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

사람들은 모두 말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폐쇄적 상황에 처해진다. 말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 절망적 상황으로 연결된다. 결국 소설 속 인물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명징한 사건인 ‘벨리’만이 이야기를 추동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소설은 말의 무게를 성찰하게 하는 작가 특유의 시적인 문체와 결합해 절망적 상황에 내던져진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언어가 있어 다행입니다. 언어는 많은 의미 지들과 생각들을, 어떤 순간과 긴 이야기를 마치 얼음처럼 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하게 얼릴 순 없지요. 밤새 이야기를 만들고 아침마다 깨진 언어가 녹으며 내는 이상하고 괴이한 노래

는 슬프고 참담했습니다.”

작가의 말처럼 언어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작금의 언어의 오염, 타락은 도를 넘었다. 어쩌면 세상이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바벨탑 시대’로 다시 회귀할지도 모른다. 입속의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필연코 소설과 같은 세상이 도래할 것만 같다.

어떻든 소설은 말이 화살이 되고 징그러운 덩어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꽃향기를 발할 수 있고, 시취(屍臭)보다 무서운 악취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입에 달린 문제라고 작가는 말한다.

〈문학고지성사·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용준 작가 〈문학고지성사 제공〉

예술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영혼의 미술관’

알랭 드 보통 지음



술과 미술을 연계해 이야기한다. 특히 그는 고단한 삶을 위로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치유 기능에 대해 천착한다. 예술은 인간의 조건인 고난을 웅대하고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특히 낭만주의적 관점에서 승고함을 지닌 작품들이 그러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치유 기능도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숭배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의 존재 가치는 무엇이며, 인간에게 예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 드 보통이 펴낸 ‘영혼의 미술관’은 익히 알고 있는 예술관과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저자는 주류 예술계가 가르치고 팔고 보여주는 예술의 시각에 대해 회의적이다.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예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꺼리는 제도의 맹점으로 인간과 예술의 관계가 유리되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미술사가 존 암스트롱과 엄선한 예술작품 140여점을 토대로 인생의 고난, 사랑, 돈, 자선 등을 예

“예술에 대한 진정한 열망은 그 필요성을 줄이는 데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예술이 나타내는 이상들을 흡수한 뒤 아무리 우아하고 의도적이어도 단지 상징적으로 밖에 드러내지 못하는 가치들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문학동네·2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삶과 죽음으로 풀어본 조선왕조 500년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

이우상 지음



저자는 왕조를 다루면서도 그 이면에 숨겨진 야사를 작가 특유의 감각으로 흥미롭게 풀어낸다.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부터 의친왕의 의왕묘까지 이르는 조선의 역사는 한편의 극적 드라마다. 어린 조카의 목숨을 빼앗고 왕위에 오른 냉혈한 세조는 어린 자식을 잃고 비극에 잠긴 슬픈 아비였고, 왕의 여자가 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장희빈은 사약을 받는 순간 훗날 왕위에 오를 세자를 저주했다.

만백성 위에 군림하던 최고 권력자들, 내명부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온갖 모략을 서슴지 않던 여인들, 이들은 한때 찬란한 왕가를 이루었던 주인공들이었으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들은 과연 영원한 안식을 꿈꾸며 깊은 잠에 빠져 있을까?

조선 왕릉을 중심으로 조선왕조와 그 역사의 뒷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나왔다. 소설가이자 순천향대학교 강사인 이우상씨가 펴낸 ‘조선왕릉 잠들지 못하는 역사’는 죽음과 역사는 화두를 통해 조선왕조를 조명한다.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 27대 왕과 왕비 등 총 42기의 능으로, 한 왕조의 능이 모두 보존돼 있는 경우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역사적 의미가 남다르다.

저자는 “어떻게 살았는가의 물음은 어떠한 생을 마감했는가와 다르지 않다”며 “조선 왕릉은 500년 조선 역사를 폐기된 역사책이 아닌 생생한 역사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다함미디어·2만7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대중운동 참여하는 사람들의 본성

‘영혼의 연금술’

에릭 호퍼 지음



평생을 떠돌이 노동자로 살았으나 독서와 사색만으로 독자적인 사상을 구축했던 미국의 사회철학자 에릭 호퍼의 신간 ‘영혼의 연금술’이 나왔다.

이번에 나온 ‘영혼의 연금술’은 저자의 아포리즘 모음집으로, 기존의 스테디셀러 ‘길 위의 철학자’ 개정판 발간을 계기로 ‘인간의 조건’과 함께 출간되었다.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독학으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세운 에릭 호퍼는 과학적 추론이나 논리적 실증보다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통찰

을 자신만의 선언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아포리즘은 모두 280개로 하나하나가 자신의 사상을 형성하는 주춧돌이다. 특히 저자는 대중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본성과 역할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추적한다.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대중운동에 매료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파나티시즘’(광신, 맹신)의 원천은 무엇인지 탐색한다.

〈이디미디어·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사찰음식 한상 온 가족 건강밥상

‘아이좋아 가족밥상’

홍승 스톱·전효원 지음



지금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은 어떠한가. 대량생산, 장기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유해 첨가물 범벅인 먹을거리가 밥상에 올려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을 위한 건강 밥상을 차려보자. 온가족 건강을 챙기는 먹을거리를 찾는 주부들을 위한 사찰음식 요리책 ‘아이좋아 가족밥상’이 나왔다.

전국을 오가며 사찰음식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홍승 스톱과 전효원씨가

요리 초보임에도 쉽게 차릴 수 있으면서 맛있고 풀나는 메뉴 108가지를 친절한 레시피와 함께 담았다.

책은 8개 파트로 나뉘 ‘매일 맛있는 반찬’, ‘아무진 한그릇’, ‘엄마표 간식 & 도시락’ 등을 소개했다. 홍승 스톱은 “음식이라는 것이 배만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격과 정서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리·1만4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인류지식의 보고 ‘고전’ 제대로 읽기

‘생각하는 심대를 위한...’

송실대·EBS 엮음



‘한 권의 고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다른 수백 권의 고전도 읽을 수 있다!’

송실대와 EBS가 공동 기획, 지난 한 해 송실대에서 열렸던 ‘2013 생각하는 심대를 위한 고전 읽기 강연’을 엮은 ‘생각하는 심대를 위한 고전 콘서트’가 출간됐다. 1강에서는 이태수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플라톤의 ‘국가(politeia)’를 가지고 이야기를 이끌어 나갔다. 이어 ▲주경철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Utopia)’ ▲김경희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II (Principe)’ ▲서병훈 송실대 정의과 교수·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On Liberty)’ ▲이재룡 송실대 불문과 교수·장 폴 사르트르의 ‘구토(La Nausee)’ ▲곽신환 송실대 철학과 교수·공자의 ‘논어(論語)’ ▲강신주 철학자-장자의 ‘장자(莊子)’ 순으로 진행됐다. 각 고전의 최고 권위자인 강연자들은 책을 통해 고전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청소년들이 고전을 어떻게 대하고 읽어야 할지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당대 상황, 역사,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과 함께 통찰하는 고전 읽기, 오늘날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재해석하는 고전 읽기 방법을 이끌어 준다.

〈꿈결·1만5800원〉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간

▲불멸의 광고수업=‘현대광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클로드 홉킨스. 현대광고의 기본과 기법의 체계를 세웠고, 현대광고학과 광고심리학 등 광고이론의 효시가 된 ‘과학적 광고’를 1924년 출간했다. ‘불멸의 광고수업’은 국내 최초로 완역 출간되는 클로드 홉킨스의 저서전이다. 홉킨스의 ‘과학적 광고’와 이를 이어받은 오길비의 ‘광고 불변의 법칙’이 하드웨어라면 이 책은 두 책의 탄생을 가져온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다.

▲홍차의 거의 모든 것=홍차에 대한 기초 지식에서부터 다양한 산지별 홍차의 특성과 등급에 관한 상식, 홍차를 이용한 다양한 플레이버 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홍차에 얽힌 흥미로운 에피소드는 물론 홍차의 역사와 문화까지 ‘홍차의 거의 모든 것’을 망라했다. 차와 사전을 전공한 저자들이 2년여에 걸쳐 홍차의 최대산지인 중국과 인도, 대만과 스리랑카까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다양한 정보와 수준 높은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열린세상·1만6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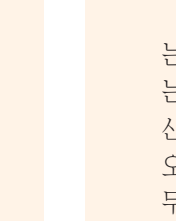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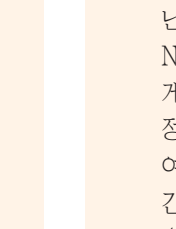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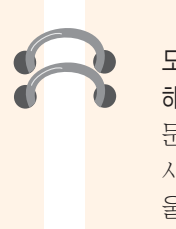
▲아파트 관리비의 비밀=“내가 내는 관리비의 60%가 누군가의 주머니로 새고 있다?” 100만원 관리비 폭탄을 40만원으로 줄인 송도 아파트 두 남자의 이야기. 평범한 아파트 주민이었던 두 남자는 2011년부터 2년간 동대표로 활동하면서 관리비를 60% 절감하는데 성공한다. 이후 이 아파트는 2012년 최우수 살기 좋은 아파트에 선정된다. 〈지식공간·1만3000원〉



▲프레이저보고서=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국제기구소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공식문건이 책으로 나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합중국이 주도해서 한국정부(박정희)를 통해 이룬 결과라고 말한다. 한국의 국방과 경제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것이다. 보고서의 주장을 허투루 볼 수 없는 이유는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 때문이다. 〈레드북·2만8000원〉

▲죽은 자의 정치학=국립 서울 현충원의 탄생과 진화의 역사, 정치사를 추적한다. 그곳이 한국 보수 세력의 이데올로기를 표상하고 재현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어온 원리와 과정과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 과정과 이념적 특성에 관한 비교론은 한국 국립묘지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나아가 한국 국립묘지의 정치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모티브와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모티브북·2만3000원〉

▲소셜 미디어 시대를 읽다=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소셜 미디어가 인터넷 권력의 변환에 미치는 영향을 소셜 미디어와 사회문화의 변환, 소셜 미디어와 정치외교의 변환, 소셜 미디어 시대의 거버넌스 세 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한울·3만4000원〉



▲인권도 난민도 평화도 환경도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게=정치, 경제, 문화, 세계사 등 어려운 사회를 한 권의 책으로 배울 수 있는 ‘반값다 사회’ 시리즈. 1권 ‘인권도 난민도 평화도 환경도 NGO가 달려가 해결해 줄게’, 2권 ‘전쟁도 평화도 경제도 UN에 모여 이야기해 보아요’가 출간됐다. 〈사계절·각 권 1만1500원〉

▲아버지의 산=동화작가 이가율이 들려주는 슬프고 아름다운 환상 동화. 신선이 산다는 아름다운 환상,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산을 오르내렸던 산 일꾼 아버지. 어느날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황산에 오른 소년 무무는 전설 속 세상을 만나는데 동시에, 아버지의 고된 삶을 깨닫는다. 〈해와나무·8800원〉

▲커다란 방귀=아이들이 좋아하는 소재인 ‘방귀’를 독특하게 풀어낸 그림책. 평화로운 아프리카 초원의 아침, 소문난 신사인 코끼리의 거센 방귀로 주변에 있던 동물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깨지고 만다. 풀을 뜯던 코뿔소, 개미를



먹던 개미핥기 등이 영문도 모른채 날아가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일어난 현상을 고스란히 받아들인다. 〈시공주니어·1만원〉

▲내 몸속의 세계=어린이 동시집 ‘내 몸속의 세계’, ‘큰일 날 뻔했다’가 동시에 출간됐다. 정미혜 시인의 첫 동시집 ‘내 몸속의 세계’는 대체로 밝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40여년간 교

사생활을 해온 이재수 시인의 두번째 동시집 ‘큰일 날 뻔했다’는 학교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일상을 주된 소재로 다루고 있다. 〈창개구리·각 권 9500원〉

▲동물들이 본 고흐의 방=고흐의 방에 놀러온 동물들. 동물들의 눈에 비친 고흐의 방은 어떻게 다를까. 밝고 어두운 것만 겨우 구별하는 달팽이, 이불 속에 숨어 있는 쥐를 볼 수 있는 뱀, 눈앞이 은빛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벌... 각 동물이 본 서로 다른 고흐의 방이 독특한 계단식 구성을 통해 펼쳐진다. 〈한울수북·1만1000원〉

어린이 책꽂이